

2/21 월요일

골 1:1-2

1<sup>1</sup> 하나님의 <sup>2</sup>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 바울과 그리고 형제 디모데는

2 골로새에 있는 1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게서 오는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엡 1:1

1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사람들에게 편지합니다.

요 1:16-17

16 우리가 다 그분의 총만에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였다.

17 왜냐하면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것이지만, 은혜와 실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기 때문이다.

요 17:16-17

16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17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딤후 1:9

9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름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입니다. 그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

엡 1:2

2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요 20:17

17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만지지 마십시오.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나의 아버지 곧 여러분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여러분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씀하십시오.”

### 각주에서 발췌

1:1<sup>1</sup> 이 서신은 골로새에 있는 교회생활 안으로 문화가 들어와 혼합된 것을 배경으로 하여 쓰인 것이다. 처음에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생활의 유일한 요소이셨지만, 그 당시에 문화가 그리스도를 대치했기 때문에 혼란이 일어났다. 교회의 조성 성분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여야 한다. 그러나 문화적인 어떤 요소, 특히 종교와 철학이 교회에 밀려들어 왔다. 종교는 유대교의 규례와 의식과 관련된 금욕주의의 형태로(골 2:16, 20-21), 철학은 영지주의와 천사 숭배와 관련된 신비주의의 형태로(골 2:8, 18) 밀려들어 왔다. 그러므로 이 책의 중심 관념은 그리스도를 대치하는 어떤 것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골로새서는 몸의 머리가신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있다. 이 책은 그리스도께서 심오하신 분이시며, 모든 것을 포함하신 분이시고, 무한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성경의 다른 어느 책보다도 더욱 완전하게 계시한다.

1:1<sup>2</sup> 에베소서 1 장 각주 1 참조.

1:2<sup>1</sup> 즉, 거룩한 사람들, 하나님께 속하도록 분별되고 거룩하게 된 사람들. 그들은 골로새에 살고 있었지만, 세상과 분별된 사람들이었다.

### 라이프스터디에서 발췌

골로새서의 중요한 점은,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때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계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죄 있는 것도, 고상한 것도 다 배제한다. 특히 문명의 모든 좋은 요소들을 배제한다. 거들거들 강조하거나와 하나님의 대적자는 그리스도에 대치하려고 문화를 이용한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다. 사탄이 우리를 악한 일로, 타락시키지 못할 때에는, 문화의 좋은 요소를 이용하여 그리스도에 대치하려 함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만을 느낄 수 있는 신도들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 그리스도인의 무리 가운데에서 우리는 좋은 요소들을 많이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좋은 것들은 그리스도 자신의 인격이 아닌, 묘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에 대치된 것들이다. 그러므로 그 많은 그리스도인의 무리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기가 어려운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리스도에 관한 이론을 가르치지만, 이러한 전파나 가르침까지도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대치물이 되기도 한다. 만약 우리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는 상황을 분명히 본다면, 골로새서의 배경이 오늘날의 상황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책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주후(主後) 1 세기에만 그친 것이 아니다. 그러한 현상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있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 그리스도는 다른 것, 특히 좋은 것들에 의해 대치되어 왔다. 기독교 안에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찾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실재는 찾을 수 없다. 많은 것들이 그리스도의 대치물(代置物)이 되었다. 예를 들면, 성경을 가르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적에 의해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대치물로 이용되고 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접촉함이 없이 성경을 연구한다. 사탄의 간교함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어떠한 일도 그리스도 자신과 대치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의 일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그들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한다.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도 우리의 성격과 행위의 좋은 것으로 그리스도를 대치할 수 있다. 만약 주님을 섬기는 어떤 형제가 죄를 지었다거나 교만하다면 다른 사람들이 주께로 나아오는 것을 막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섬기는 형제의 타고난 온유와 겸손은 죄나 교만보다 더 막고 손상시킨다. 죄가 없어야 그리스도와 관계를 가질 수 있음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다. 그러나 좋은 행위나 성격과, 그리스도 자신과의 차이를 분별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훌륭한 행위를 그리스도와 동일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계시가 없으면, 우리도 우리의 좋은 행위를 그리스도에 대치시킬 수 있다.

이 책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다. 우리가 이 서신의 배경을 분명히 이해한다면, 우리가 취해야 할 유일한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십자가는 좁은 길이며, 또한 빠른 길이다. 십자가를 취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좁은 길이다. 그러나 이 길을 기꺼이 취하는 사람에게는 십자가는 빠른 길이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모두 아무것도 아니어야 하고, 없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 죽고 장사지낸 바 되었다고 말한 바울의 태도였다. 이것을 잡으려면 계시가 필요하다. 우리 자신이 무엇이 되고, 무엇을 갖고, 무엇을 할 수 있을 때 그것들은 다 그리스도의 대치물이 될 수 있다. 우리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될수록, 더 많이

그리스도를 대치할 수 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없어져야 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하며,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신의 어떠한,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할 수 있음이 그리스도의 대치물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험에서 그리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될 수 없다. 교회 생활에서는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골로새서가 가르치는 것이다. 그리스도 아닌 모든 것은 없어야 한다.

(골로새서 라이프 스테디, 1 장)

## 2/22 화요일

### 골 1:3-8

3 우리는 항상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1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4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여러분의 1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여러분의 1 사랑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5 그러한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하여 1 하늘들에 쌓아 둔 2 소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소망은 여러분이 전에 3 복음 진리의 말씀에서 들은 것입니다.

6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이르렀을 때에 여러분이 듣고 1 진리 안에서 2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날부터 이 복음이 여러분 안에서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고, 또한 온 세상에서도 열매를 맺고 자라고 있습니다.

7 여러분은 우리와 함께 노예가 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는 여러분을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1 사역자이며,

8 그 영 안에 있는 여러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 준 사람입니다.

### 벧전 3:14

14 우리는 형제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죽음에서 나와서 생명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압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거합니다.

### 벧전 4:16,19

16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 가지신 사랑을 알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하십니다.

19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 엡 6:24

24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 살전 1:3

3 또한 우리는 여러분의 믿음의 일과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 각주에서 발췌

1:3' 에베소서 1 장 각주 3 참조.

1:4'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실질화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며, 사랑은 그리스도께 받은 것을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고, 소망(골 1:5)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다.

1:5' 우리가 하늘들에 소망을 쌓아 두는 길은 그리스도를 살고 체험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살고 체험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늘들에 소망을 쌓아 두게 된다. 그러므로 소망은 지금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쌓이고 있다.

**1:5<sup>1</sup>** 1 장 4 절과 5 절에 언급된 소망과 믿음과 사랑, 이 세 가지는 사도가 고린도전서 13 장 13 절에서 강조한 것이다. 거기에서 사랑이 강조되었던 이유는 고린도 사람들의 상황 때문이었다. 여기에서는 소망이 강조되는데, 엄밀히 말해서 이 소망은 그리스도 자신이다(골 1:27).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신다는 것을 계시하려는 것이다.

**1:5<sup>3</sup>** 복음 진리는 복음의 교리가 아니라, 복음의 실재, 곧 복음의 참된 사실이다. ‘말씀’은 복음의 교리로 여겨질 수 있지만, ‘진리’는 분명히 실재를 가리킨다. 모든 것을 포함하신 인격이시며,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 여러 방면의 일을 성취하신 그리스도는 복음의 실재이시다.

**1:6<sup>1</sup>** 여기에서 ‘진리’는 실재를 의미한다(참조 요일 1 장 각주 6 의 요점 8).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은 머리를 사용하여 단지 피상적인 용어나 교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실재를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다.

**1:6<sup>2</sup>**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가리킨다(요 1:17, 고전 15:10).

**1:7<sup>1</sup>** 그리스도의 사역자는 그리스도의 종, 즉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공급함으로써 그리스도로 다른 이들을 섬기는 사람이다.

### 라이프스터디에서 발췌

이제 5 절에 언급된 소망을 보기로 하자. 4 절과 5 절에 있는 소망과 믿음과 사랑은 고린도전서 13 장 13 절에서 사도가 강조한 세 가지이다. 고린도의 상황을 인해, 거기에서 강조한 것은 사랑이었다.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소망, 즉 엄밀하게 말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 되시는 그리스도의 계시로 인한 그리스도 자신이다(27 절).

우리가 이것을 완전하게 이해하려면, 4 절에서 말씀하신 믿음과 사랑을 잘 살펴야 한다. 바울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음이요」라고 말했다.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인가를 깨닫고 받는 것이요, 사랑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것을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요, 소망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럽게 될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모두 주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다. 이 두 가지가 참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한다.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에게 내가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하자. 만약 그가 나에게 사랑 안에서 응답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주님을 진실로 믿는 자가 아니다. 성도에 대한 사랑은 항상 주님에 대한 믿음과 병행한다. 그 둘은 나누어질 수 없는 것이다.

본질적으로 결코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 둔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골로새서를 썼다면, 「하늘에 있는 소망을 인함이니」라고 썼을 것이다. 그러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쌓아 둔」이라는 말을 삽입했다.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 둔 소망은 사실 매우 주관적인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 생활과 많은 관계가 있다. 문맥을 보면, 「하늘에 쌓아 둔 소망」은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사느냐와 깊은 관계가 있다. 우리가 성도들을 사랑하면 할수록, 더 많은 소망이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진다. 그러나 우리가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위하여 쌓아 둔 소망이 거의 없을 것이다.

오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살면 살수록,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위해 하늘에 쌓아 둔 소망은 더 클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살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하늘에 계시기는 하지만, 우리를 위한 영광으로서 더 쌓여지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당신이 번 돈의 상당한 양(品)을 은행에 맡긴다면 은행의 계좌(座)에 당신을 위한 저축이 쌓여질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돈을 벌지도 않고, 은행에 맡긴 것도 없다면 당신을 위해 쌓여진 저축도 없을 것이다. 같은 원리로, 우리를 위해 하늘에 쌓아 둔 소망이 얼마 만큼인가는,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살았는가에 달려 있다. 우리의 소망이신 분이 계시므로, 우리는 모든 성도를 구별 없이 사랑해야 한다. 그러한 생활이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 하늘에 소망을 쌓아 두는 생활이다.

6 절에서는 계속하여,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도 같이 또한 온전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라고 말한다. 성도에 대한 사랑이 바로 복음에 의해 맺힌 열매이다. 복음이 실제로 전파되었을 때, 열매가 맺힌다. 복음을 받은 사람에게에는 모든 믿는 자에 대한 사랑이 생겨나는 것이다.

골로새에 있는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인간적으로는, 유대인과 이방인은 서로 멸시하고 서로 미워하는 사이이다. 그러나, 골로새의 사람들은 주 예수를 믿은 후에, 유대인 신도(信徒)들이나 이방인 신도(信徒)들이 서로 사랑하게 되었다. 인간적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었던 그러한 사랑이 바로 복음의 열매이다. 자라서 열매를 맺는 복음도 역시 그리스도 자신이다. 그것은 골로새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처음 들은 날부터 그들 안에 자라온 그리스도이다.

(골로새서 라이프스터디, 2 장)

## 2/23 수요일

## 골 1:9-11

9 그러므로 우리도 그 소식을 들은 날부터, 여러분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며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모든 영적인 지혜와 총명으로 2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기를 바라며,  
 10 또 여러분이 1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여 2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서 3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온전히 4 앎으로써 자라기를 바랍니다.  
 11 또한 우리는 여러분이 그분의 영광의 1 권능에 따라 모든 2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기를 바라며,

## 엡 1:5,16-18

5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뜻의 기쁨을 따라 우리를 미리 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아들의 자격을 얻어 하나님 자신께 이르도록 하셨습니다.

16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드리며, 기도할 때에도 여러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7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해 주시고,

18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시고,

## 빌 3:10-11

10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 능력과 그분의 고난의 교통을 알고,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

11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뛰어난 부활에 이르고자 합니다.

## 마 7:21

21 나에게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갑니다.

## 마 12:50

50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 사람이 나의 형제이고, 자매이며, 어머니입니다.”

각주에서 발췌

1:9<sup>1</sup> 영적인 지혜와 총명은 우리의 영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께 속한 것이다. 이것은 사람의 어두워진 생각 안에 있는 영지주의 철학과는 대조된다. 지혜는 우리의 영 안에 있으며, 이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인식할 수 있다. 영적인 총명은 그 영으로 새롭게 된 우리의 생각 안에 있으며, 이것을 통해 우리는 영 안에서 인식한 것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다.

1:9<sup>2</sup>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뜻은 사소한 일들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즉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경륜에 관련된 것이다(엡 1:5, 9, 11).

1:10<sup>1</sup>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안 결과이다. 우리가 이렇게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곧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며 행하는 것이다.

1:10<sup>2</sup> 즉, 모든 방면에서.

1:10<sup>3</sup> 여기에서 ‘열매를 맺으며’는 각 방면에서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자라게 하며,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그리스도를 번식시키는 것을 가리킨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든 선한 일의 참된 본질이다.

1:10<sup>4</sup> 이것은 생각 안에서 문자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영 안에서 하나님을 생생하게 아는 것이다. 이렇게 앎으로써 우리는 생명 안에서 자란다.

1:11<sup>1</sup>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권능이며 그분의 권능 안에서 하나님은 영광스럽게 되신다.

1:11<sup>2</sup> 이 능력은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일 뿐 아니라(빌 3:10), 발전기와 같으신 그리스도 자신이다. 이분께서 모든 일에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며(빌 4:13),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신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을 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라이프스터디에서 발췌

9 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도 들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영적인 지혜와 이해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회복역).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란 그분의 영원한 목적과, 그리스도에 대한 경륜(經論)을 가리키는 것으로서(엡 1:5, 9, 11), 사소한 일들 가운데 있는 그분의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수년 전, 몇 청년 형제들이 결혼이나 취업 문제 등에 대해 질문해 왔을 때, 나는 그들에게 골로새서의 이 구절을 보게 했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영적인 지식을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한 하나님의 뜻은, 그 초점이 결혼이나 직업이나 주택문제같은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분깃이신,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에 있다.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를 알고, 체험하고, 우리의 생명이신 그분을 사는(living) 것이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알 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충만히 채워질 수 있다.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를 알고 체험하기 위해서는 모든 영적인 지혜와 이해(理解)가 요구된다.

「모든」 과 「영적인」 이라는 두 단어는 지혜와 이해를 함께 수식하고 있다. 영적인 지혜와 영적인 이해는 우리의 영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인데, 이는 인간의 어두워진 한계 안에 있는 그노시스(Gnostic) 철학과는 반대되는 것이다. 지혜는 우리의 영 안에 있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감지(感知)한다. 영적인 이해는 영에 의해 새롭게 된 우리의 생각 안에 있는 것으로서, 우리의 영 안에서 감지한 것을 이해하고 해석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를 알고 체험하고 사는(live)것에 대해 깊은 뜻을 가지고 계신다. 9 절에서 바울은 골로새의 형제들이 누구와 결혼해야 할 것인가, 어디에 살 것인가. 무슨 직업을 가져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을 알기를 기도한 것이 아니다. 그의 마음은 그런 하찮은 것들에 빠져 있지 않았다. 이 구절에서의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골로새 사람들이 유대인의 관례나 이방인의 의식(儀式)이나 인간 철학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뿐아니라, 그들이 육체의 방종(放縱)을 억제하기 위해 몸을 엄격히 다루는 금욕주의를 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골로새 사람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며, 그리스도가 그들의 생명과 인격이 되는 것이다. 오늘날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은 똑같다. 바울은 마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다. 「골로새 사람들아, 너희는 그노시스 철학과 신비주의와 금욕주의와 관례와 의식(儀式)으로 말미암아 미혹되었고, 그릇된 길로 빠졌고, 속임을 당했다.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충분한 지식으로 채워져야 한다.

하나님의 뜻은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가 너희 분깃이 되는 것이다.」

10 절에서 바울은 말하고 있다.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凡事)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에 대한 충분한 지식에 의해 자라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함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진 결과이다. 만일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뜻이 우리가 그리스도로 흠뻑 적셔지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과 인격으로 삼고 그리스도를 사는(live) 것임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행함은 저절로 주께 합당하게 될 것이다. 어떤 이는 주께 합당히 행한다는 것을 겸손해지고, 선(善)해지고, 관대해지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합당히 행함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며, 그 안에서 행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서도 겸손해질 수 있고, 선해질 수 있고, 관대해질 수 있다. 그리스도를 사는(live) 것만이 주께 합당히 행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뜻이요, 또한 그분이 우리의 행함이 되어야 한다.

(골로새서 라이프 스테디, 3 장)

#### 2/24 목요일

##### 골 1:12-13

12 여러분이 1 빛 가운데에서 성도들에게 2 할당된 몫을 받을 3 자격이 있도록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랍니다.

13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출하시어,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 안으로 옮기셨습니다.

##### 행 20:32

32 이제 나는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을 건축할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이들 가운데 있는 유업을 여러분에게 줄 수 있습니다.

##### 벧후 2:9

9 그러나 여러분은 선택받은 족속이고, 왕들인 제사장 체계이며, 거룩한 나라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시어 자신의 기묘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의 미덕들을 널리 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 엡 1:18

18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시고,

##### 벧전 1:7

7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안에 계신 것같이 우리도 빛 안에서 행하면, 우리는 서로 교통을 갖게 되고, 그분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온갖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 고후 3:18

18 그러나 우리 모두는 너울을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써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다. 이것은 주 영에게서 비롯됩니다.

##### 시 89:15

15 기뻐 외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습니다. 오, 여호와님! 그들은 주님의 얼굴빛 가운데 다닙니다.

**요 1:4**

4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갈 6:15**

15 할레나 무할레는 아무것도 아니며, 중요한 것은 새 창조물뿐입니다.

**각주에서 발췌**

**1:12<sup>1</sup>** 여기에서 빛은 다음 절의 어둠과 대조된다. 우리가 사탄의 권세 아래 있었을 때는 어둠 가운데 있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 안에 있으며, 빛 가운데에서 그분을 누리고 있다.

**1:12<sup>2</sup>** ‘할당된 뭉’이란 이스라엘 자손들이 좋은 땅 가나안을 그들의 유업으로 할당받은 것처럼(수 14:1), 성도들이 받은 유업의 한 뭉을 가리킨다. 신약의 믿는 이들이 받은 유업, 곧 그들이 할당받은 뭉은 물질적인 땅이 아니라,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는 성도들이 누리기 위해 신성한 유업으로 할당된 뭉이시다.

**1:12<sup>3</sup>**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고 영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것을 통하여,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다.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신 이 그리스도는 성도들에게 할당된 뭉이시다.

**라이프스터디에서 발췌**

바울은 골로새서를 쓰기 전에 갈라디아서를 썼다. 갈라디아서 3 장 14 절에서,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고 말한다. 어떤 교사들은, 아브라함의 복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롭다 함을 가리킨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전체의 내용을 볼 때, 이 복은 좋은 땅을 가리키는 것이다. 창세기 12 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복은 그 땅이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 장 14 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성령의 약속과 연결지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한 좋은 땅의 약속이 곧 성령임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그 영이 곧 좋은 땅이다.

우리는 골로새서에서 그리스도를 씨로 소유하는가, 땅으로 소유하는가? 이 책에서 그리스도는 씨인 동시에 땅이다. 골로새서 2 장 7 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가 박혔다고 말한다. 이것은 그분이 땅임을 가리킨다. 그러나 3 장 4 절에서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그분이 또한 씨가 되심을 가리킨다. 그러나 골로새서에서 그리스도는 씨보다는 땅으로 더 많이 계시된다. 마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모든 것이 된 땅과 같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업이요, 분깃이요, 만유가 되신다. 그 땅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 즉 젖과 꿀과 물과 짐승들과 곡식과 광물을 공급했다. 이 서신을 쓸 때, 바울은 그릇된 골로새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자신 외의 어떠한 것도 취하지 말도록 권하기 위해, 만유를 포함한 땅의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그리스도가 아닌 어떠한 것도 흑암의 권세에 관계된 것이므로 우리는 받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우리는 다만 그 좋은 땅에 거하면서, 다른 요소가 일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기업이다. 우리는 그분에 속한 것만을 받아야 한다.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과는 반대로, 바울은 병고침이라든지 건강, 주택, 가정 생활, 직장 문제 따위에 대한 감사를 드리지 않았다. 그보다 그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분깃의 뭉을 얻게 하신」 것에 대해 아버지께 감사를 드렸다.

골로새서는 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다. 그러므로 여기에 나타난 성도의 분깃이란 그들의 누림을 위한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이다.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하늘 나라에 있는 저택을 물려 받게 하신 것이 아니요, 만유를 포함한, 성도들의 분깃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뭉을 갖게 하신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만유를 포함한 우리의 분깃이심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다.

골로새서 1 장 12 절에서는, 우리가 빛 가운데서 성도들의 분깃이신 그리스도를 얻는다고 한다. 하나님 한 분만이 빛이시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이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그분의 임재(臨在)안에 있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이한 빛 가운데로 부르심을 입었다(벧전 2:9).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 흑암 속에 있었고, 우리와 관계된 모든 일과 상황은 어둠뿐이었다. 복음은 우리에게 빛으로 임했다. 이 빛이 우리를 하나님께 회개케 했고, 우리가 회개했을 때 저절로 그분께 마음이 열렸다. 우리는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을 때 그 무엇인가가 우리 속에서 빛나고 있음을 체험했다. 우리는 주 예수님을 믿고, 우리를 위해 죽으심에 대해 감사드렸고, 그분을 우리의 구원자와 주(主)로 영접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돌이켰을 때 빛이 우리 속에 들어왔고, 우리 속의 밝음은 더 강해졌다. 우리 중의 많은 사람들이, 돌이킨 날로부터 그러한 빛을 체험한 것을 간증할 수 있다. 그 빛 가운데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분깃이 되셨다. 그 당시에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지만, 우리는 이러한 체험을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를 얻고 누리는 유일한 길은 빛 가운데 있는 것이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빛이시다. 우리가 주께로 돌이켜 그분의 임재(臨在)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빛

가운데서 우리의 분깃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저절로 누리게 된다.

빛은 하나님의 임재이다. 빛 가운데 거하기 원한다면 깊은 속에서 주께로 돌이켜야 한다. 그렇게 하면 주님의 임재가 비취는 빛이 된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는 실제적으로 성도들의 분깃이 되신다.

하나님과 교통하려면, 반드시 빛 가운데서 행해야 한다(요일 1:7). 어떤 경우에는 가장(假裝)할 수 있지만, 빛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누리는데 있어서는 가장할 수 없다.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주님을 속이지는 못한다. 주님은 너무도 참되시고 정직하시고 실제적인 분이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접촉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수건을 벗은 얼굴로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을 읽어야 한다. 주님과 교통하며 안의 기름부음을 따를 때, 우리는 깊은 속에서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누리게 될 것이다. 이 생명은 빛이다. 우리가 안의 기름 부음을 따른다면 빛 가운데에 있게 될 것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참되게 교통할 때에도 빛 가운데로 인도된다. 교통 안에는 빛의 비침이 있다. 더욱이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고, 집회에 참석해야 하는데 이는 교회의 집회 안에서 우리가 빛 가운데 있게 되기 때문이다. 때때로 우리는 교회 집회 중에서 깊은 속에서 우리의 분깃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며 빛 가운데 있는 것을 느낀다. 이 모든 것들이 빛 가운데서 성도들의 분깃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길이다.

(골로새서 라이프 스테디, 6 장, 3 장, 7 장)

2/25 금요일

골 1:12-14

12 여러분이 빛 가운데에서 성도들에게 할당된 뭉을 받을 자격이 있도록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바랍니다.

13 아버지께서 우리를 1 어둠의 권세에서 2 구출하시어,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3 아들의 왕국 안으로 옮기셨습니다.

14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1 구속받았습니다. 곧 2 죄들이 용서받았습니다.

마 11:28-30

28 수고하며 짐을 진 사람들이여, 다 나에게로 오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안식을 줄 것입니다.

29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허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혼이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30 왜냐하면 나의 멍에는 편하고, 나의 짐은 가볍기 때문입니다."

갈 5:1

1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은 자유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노예 노릇하게 하는 멍에에 매이지 마십시오.

롬 7:6

6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얽매어 있던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나서, 문자의 낚음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움으로 섬깁니다.

롬 8:2

2 왜냐하면 생명의 영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벧전 5:3

3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은 바로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들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요이 3:17

17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미리 알았으니, 불법자들의 오류에 휩쓸려 자신의 견고한 상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엡 4:18

18 그들은 이해력이 어두워져 있으며, 그들 속에 무지가 있고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 각주에서 발췌

1:13' 직역하면, 그 어둠.

1:13<sup>a</sup> 그리스도께서 몸의 머리가 되시고 그분을 믿는 우리가 그분의 몸의 지체들이 되도록, 하나님은 어둠의 권세, 곧 사탄의 왕국(마 12:26 하)에서 우리를 구출하시어,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 안으로 옮기셔야 했다. 이로써 우리는 우리에게 할당된 뭉, 곧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께 참여할 자격이 있게 된다.

1:13<sup>b</sup> 아들은 생명의 근원이신 아버지의 표현이시다(요 1:4, 18, 요일 1:2). 아버지의 사랑의 대상이신 아들은 신성한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의 체현이 되신다.

1:14' 앞 절에 언급된 '구출'로 말미암아 사탄의 악한 능력이 파괴되고, 우리를 다스리는 사탄의 권세가 처리된다. 그리고 이 절에 언급된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가 이루어져 우리의 죄들이 처리된다.

1:14<sup>2</sup> 죄들이 용서받은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구속이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구속이 성취되었고, 우리의 죄들이 용서받게 되었다.

### 라이프스터디에서 발췌

좋은 땅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분깃이었음과 같이, 그리스도는 오늘 성도들의 분깃이다. 우리가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바울은 1 장 12 절을 쓸 때 그 마음 속에 가나안 땅의 모형을 품고 있었다. 계속하여, 바울은 1 장 13 절에서, 그분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분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라고 말한다. 이 구절은 우리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구출되어 좋은 땅으로 옮겨진 것을 상기하게 한다. 그러므로 1 장 13 절에서의 바울의 관념은, 출애굽기에 계시된 것처럼 애굽을 나와 좋은 땅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옛적에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좋은 땅으로 인도하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도 같은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애굽으로 예표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좋은 땅으로 예표된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옮기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 젖과 꿀이 흐르는, 압제 없는 땅으로 인도됨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불리우는 놀라운 영역으로 옮겨진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의 분깃의 물을 받는 자격을 얻는 것은 사실상 좋은 땅에 들어가는 것이다. 1 장 12 절과 13 절을 쓴 바울의 뜻은 구약에 나타난 모형에 따른 것이다.

이제 우리는 바울이 골로새서 1 장 12 절에서 빛에 관해 말한 후 계속해서 다음 구절에 흑암의 권세에 대해 언급한 것을 이해할 수 있다. 마치 바울은 골로새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흑암의 권세에서 구출받았으나

이제 다시 어둠 속으로 되돌아갔다. 너희들은 너희가 옮긴 바 되었던 바로 그 빛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하는 듯하다. 우리는 골로새서에서의 흑암의 권세란 절기를 지키는 것과 형식과 종교와 여러가지 주의(主義) 등을 포함한 것임을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것들의 영향으로 골로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좋은 땅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과 같이 끌려갔다.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와 빛의 한계에서 떨어져 나갔다. 그 결과 그들은 성도들의 분깃이신 그리스도를 누림을 상실했다.

골로새 성도들의 잘못된 그리스도 외의 것을 받아들이고 따른 것이었다. 그리스도 대신에 무엇인가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흑암 가운데 있는 것일 뿐 아니라 흑암의 권세의 조종 아래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것 - 철학, 종교, 성격, 덕성, 관념, 의견 등 - 은 모두 우리를 조종하는 흑암의 세력이 된다. 골로새에 있던 흑암의 권세는 유대교의 관례, 이교도(異教徒)의 의식(儀式), 철학, 신비주의, 금욕주의 등이었다. 이런 것들이 좋아 보일지라도 그리스도를 대신한 것이므로 사실상은 흑암의 권세였던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빛이신 그리스도를 옆으로 제쳐놓았다. 그리하여 어둠이 다시 한번 교회 안의 성도들을 다스리게 되었다. 이것이 골로새의 상황이었으며, 바로 오늘날의 상황이기도 하다.

골로새서에서 말하는 흑암의 권세란 문화(文化)와 우리의 성격과 기질과 타고난 성품의 좋은 면들을 말한다. 흑암의 권세는 또한 우리의 덕성(德性)과 종교와 철학과 관례와 의식(儀式)과 도의(道義)와 윤리적 기준 등을 포함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모든 것에서 건져내시어 그분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놓으셨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다스림과 제한을 받으며 사는 것이다. 이곳에서 우리는 의(義)와 힘과 권세 아래 있음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다정하고 사랑스러운 주 예수 아래 있음을 느낀다. 우리가 주 예수께 사랑한다고 말할수록 우리는 한편으로는 더 많은 자유를 갖게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더 많은 제한과 다스림을 받게 된다.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의 인격과 생명으로 삼기를 갈망한다. 이것이 교회 생활을 위한,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다.

(골로새서 라이프 스터디, 6 장, 7 장, 5 장, 4 장)

### 2/26 토요일

#### 골 1:15-18

15 이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1형상이시며, 2 모든 창조물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16 왜냐하면 만물, 곧 하늘들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1 보좌들이나 2 지배 권위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 다 3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으며, 또한 만물이 4 그분을 통하여, 그리고 5 그분께 이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17 그분은 1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2 그분 안에 연결되어 존재합니다.

18 또한 그분은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분은 시작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 1 가장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그분 자신께서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 고전 15:20-22

20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21 죽음이 사람을 통하여 왔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사람을 통하여 왔습니다.



22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 요 12:23-24

23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때가 왔습니다.

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아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 고후 5:17

17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창조물입니다. 옛것들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 롬 8:29

29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그분의 아들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아들을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말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 엡 4:15

15 오직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붙잡고,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곧 머리이신 분 안으로 자라야 합니다.

#### 각주에서 발췌

1:15<sup>1</sup>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곧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하나님의 실질의 표현이신(히 1:3) 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표현하신다. 여기에서 형상은 물질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가 모든 속성과 미덕으로 표현되는 것이다(참조 빌 2 장 각주 6). 이러한 해석은 골로새서 3 장 10 절과 고린도후서 3 장 18 절로 확증된다.

1:15<sup>2</sup>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다. 그러나 창조된 피와 살을 가진 사람이신(히 2:14 상) 그분은 창조물의 일부이시다. ‘모든 창조물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창조물 가운데 으뜸이시라는 것을 가리킨다. 왜냐하면 이 절부터 18 절까지에서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만물 가운데 으뜸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1:16<sup>1</sup> ‘보좌들’은 보좌 위에 앉아 있는 권위 있는 존재들을 가리킨다.

1:16<sup>2</sup> 에베소서 1 장 각주 21<sup>1</sup> 참조.

1:16<sup>3</sup> ‘그분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인격의 능력 안에서’를 의미한다. 만물은 그리스도의 존재의 능력 안에서 창조되었다. 모든 창조물은 그리스도의 내재적인 능력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1:16<sup>4</sup> ‘그분을 통하여’는 그리스도께서 능동적인 수단이라는 것을 가리키며, 그분을 통하여 만물이 순서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1:16<sup>5</sup> 혹은, 그분을 위하여.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창조물의 귀결이 되신다는 것을 가리킨다. 만물은 그리스도께 돌아가 그분의 소유가 되도록 창조되었다. ‘안에서’와 ‘통하여’와 ‘이르도록’은 창조가 주관적으로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창조물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창조되었다.

1:17<sup>1</sup>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영원 과거부터 존재하신 것을 가리킨다.

1:17<sup>2</sup> 혹은, 그분 안에서 함께 존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연결되어 존재한다는 것은 만물이 붙들어 주는 중심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마치 바퀴의 살들이 중심에 있는 바퀴통에 의해 붙들려 있는 것과 같다.

1:18<sup>1</sup> 1 장 15 절부터 17 절까지는 그리스도를 창조물 가운데 첫째로, 곧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으뜸으로 계시한다. 그리고 1 장 18 절은 그리스도께서 몸의 머리로서 부활 안에서 첫째이시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새 창조물인 교회 안에서 으뜸이시다(고후 5:17, 갈 6:15).

#### 라이프스터디에서 발췌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창조자이실 뿐이요 피조물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도 되시고 사람도 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창조자이요 피조물도 되신다. 만일 그리스도가 피조물이 아니라면 어떻게 혈과 육을 입을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지 않았는가? 혈과 육을 가지신 몸을 입지 않으셨는가? 정녕 그러하셨다. 이 가르침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지식이 부족한 자들이다. 사실상 그들은 이단이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참으로 사람이 되셨음을 믿지 않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만 믿으니, 그런 믿음은 이단이다. 우리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니, 전에도 그러하셨고 항상 그러하실 것이다. 그분은 육신을 입으심으로 사람이 되셨다. 사람이 되지 않았다면 붙잡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실 수 없었다. 주님을 찬양하자! 우리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되셨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는 영원하시고 태어나실 필요가 없으시지만, 그분은 1 장 15 절에서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 불리우신다. 태어난 것은 그 어떤 것이든지 피조물의 일부분임에 틀림없다. 그리스도가 단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 아니시라면 태어나실 수가 없으셨으니,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으신 무한하고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이신 그리스도는

태어나셔야 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태어나셨다! 이사야서 9 장 6 절에서,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고 말한다. 우리에게 난 아기이신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불리웠고, 우리에게 준 아들이신 그분의 이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불리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신 그리스도는 영원하시다. 그러나 그분은 아기로서, 또한 아들로서 태어나셔야 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태어난 것이지 창조된 것은 아니라고 따지지만, 성경에 의하면 태어난다는 것은 창조를 이루는 것이므로 태어난 것은 곧 창조된 것이다.

이상(以上)과 같은 사실을 배경으로 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뛰어난심과 만유를 포함하심을 보아야 하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중심과 전체이심을 보아야 한다. 골로새서는 그리스도가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심. 즉 그분이 만물의 으뜸이심을 계시하고 있다. 첫 번째 창조에서나 새 창조에서나 그리스도는 모두 으뜸의 지위에 계신다. 우리는 1 장 15 절에서 그리스도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 이시고, 1 장 18 절에서는 그분이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자」 이심을 보게된다. 하나님의 새 창조는 부활로 말미암는다. 새 창조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뛰어나심은 그분이 첫 번째로 부활하신 분임을 의미한다. 그분은 창조에서나 부활에서나 첫째 되시는 분이시다. 이것은 그분이 옛 창조인 우주 가운데에서 첫째 분이며, 새 창조인 교회 가운데에서도 첫째 분임을 뜻하고 있다. 우주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를 충만히 나타내는 교회가 존재하는 환경이다.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으뜸이실뿐 아니라, 환경인 우주 안에서도 으뜸이시다. 이것은 그분이 만물의 으뜸이심을 뜻한다. (골로새서 스터디, 8 장, 5 장)

## 2/20 주일

### 엡 1:3-6

3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들의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축복으로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4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어,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5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뜻의 기쁨을 따라 우리를 미리 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아들의 자격을 얻어 하나님 자신께 이르도록 하셨습니다.

6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하시는 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찬송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엡 1:17-23

17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해 주시고,

18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시고,

19 또한 믿는 우리들을 향하여 강한 권능으로 운행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시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들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셔서,

21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지배 권위 위에, 그리고 이 시대뿐 아니라 오는 시대에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22 또 하나님은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아래 복종시키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머리가 되게 하시어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23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 찬송 (영한 동번)

#374 (#496), #766 (#966),  
#163 (#189), #797 (#1197),  
#158 (#202)

### 추가로 읽을 말씀

라이프 스터디 빌립보서 메시지 1-3, 5-7

2022. 2. 21 ~ 2022. 2. 25

단체로 읽을 말씀: "하나님을 누리는 길" 13 장